

亞洲 AIDS 확산 심각 2.3년 내 阿洲 능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2~3년내에 아프리카를 능가, 에이즈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나카자마 히로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말했다.

그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 이미 에이즈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돼 있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아프리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나 앞으로는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한층 더 심각한 에이즈 확산 지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AFP=聯合)

여대생들 AIDS 인식도 매우 낮아

여대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여대 하베진(河培鎭) 교수(화학과)가 최근 여대생 4백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여대생의 AIDS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

상 학생 중 AIDS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은 3%에 불과했고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이 11.3%, 나머지는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AIDS의 원인균인 HIV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63.9%나 됐으며 HIV에 감염된 경우 곧바로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는다고 불구하고 '곧 발병한다' 또는 '모르겠다'는 학생이 53.6%를 차지했다.

하교수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과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양과목을 대학신입생들이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聯合)

일 법원 에이즈 감염자 해고는 위법

에이즈에 감염돼 있다고 해서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도쿄지법(재판장 林豊)은 에이즈에 감염된 회사원(35)이 근무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불법이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한 해고는 현저히 사회적 적합성을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하야시 재판관은 따라서 이 회사원이 소속했던 컴퓨터 회사와

태국 에이즈 사망자 월평균 2천여명

태국의 에이즈 보균자와 환자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아 전국적으로 월평균 2천여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병원이 이들을 수용하느라 다른 입원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저명한 에이즈 전문가가 최근 밝혔다.

태국적십자사 에이즈 담당국장이자 국제에이즈협회 고문인 프라판 파누파크 박사(51, 출라롱콘대 의과대학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매주 화요일에만 문을 여는 출라롱콘대학병원 에이즈 클리닉(방콕소재)을 찾는 환자나 보균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백50명이었으나 금년들어서는 2백8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태국적십자병원의 경우는 에이즈로 인한 입원신청환자가 늘어 6개월전에 예약을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라판 교수는 태국보사부가 현재 태국의 에이즈 보균자를 약 60만, 환자를 1만3천여명(사망자 제외)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자신은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것으로 추산하

고 있다면서 이제 에이즈는 섹스 업스 취업여성이나 동성연애자, 마약환자 등 이른바 위험그룹의 차원을 넘어 남편들의 난잡한 섹스 업스 출입과 혼외정사 등으로 가정주부들에게 만연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콕=연합)

태국 초·중교 에이즈 학과목 독립현상

에이즈의 만연으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상설 에이즈예방위원회와 함께 보사부내에 에이즈과를 독립부서로 두고 있는 태국은 우선 방콕 시내 소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장 에이즈의 실상과 퇴치라는 독립 학과목을 빠른 시일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눈길.

방콕시의 차이난트 캄파나트센

아른 보건담당 부시장은 앞으로 5년내 태국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독립된 정규 교과목으로 이를 가르치기로 했다고 설명.

그는 교과목 내용은 에이즈의 실상, 안전한 성생활, 이성과의 성행위로부터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 에이즈환자 치료 및 간호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빠르면 내년 부터 정규 교과에 에이즈 과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부연. (방콕=연합)

태국 에이즈 퇴치 국토종단 마라톤 개최

태국정부는 날로 놀랄만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오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태국 남북을 종단한 뒤 북에서 수도 방콕에 이르는 3천Km의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마라톤대회의 조직위원장인 아난 판아라춘 전총리는 이번 달리기대회는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콕=연합)

태국 30명 참여 HIV백신 인체 실험 개시

태국은 HIV백신에 대한 인체 실험을 개시하였다.

이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백신에 대한 실험은 이미 미국 지원자 1천명 이상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안전하고 면역반응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그같은 첫 결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을 둔 것이다. (방콕 AP=연합)



태국의 Bar girls

자회사인 소프트 웨어 판매회사에 대해 해고후 임금 약 9백만엔을 지급하고 원래대로 근무를 시키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에이즈가 치료하기 어려운 병인데다가 사회적으로 편견이 강하다면서 "에이즈 감염을 본인에게 알릴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을 충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등에게만 한정돼야 한다"면서 자회사 사장이 이 회사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이 회사원은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회사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동경=聯合)

'에이즈와의 전쟁선포식' 개최

에이즈 감염자 모임인 희망나눔터(회장 김형철, 42)는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원과 김수경 추기경 등 종교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에이즈와의 전쟁선포식'을 가졌다.

김회장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성명을 통해 "이 무서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노력하지 않는다면 곧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우리와 같이 에이즈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에이즈 예방과 퇴치 운동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 8명은 이날 오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기독교 회관 앞길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단 2천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에이즈 예방 및 퇴치 홍보 활동을 벌였다. (서울=聯合)

중국 의료진 한방 에이즈 치료제 개발

중국 中醫연구원 기초이론연구소와 중국의학과학원 실험동물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방 에이즈 치료제인 <中研一號>가 에이즈치료에 상당한 효험을 보이고 있다고 북경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9년부터 탄자니아에 파견돼 에이즈 치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연구소 의료진이 탄자니아의 에이즈환자들에게 이 약을 사용한 결과 52%의 치료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약은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투약을 통해 에이즈 병독을 억제하고 인체의 면역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에이즈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치료제와

는 달리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북경일보는 덧붙였다. (북경=聯合)

에이즈감염 출국조치 외국인 51명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출국조치된 외국인 중 3분의 2가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인 것으로 파악돼 아들에 대한 에이즈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8년 국내에서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 1명이 처음 발견된 이후 에이즈보균자로 밝혀져 강제 또는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모두 51명으로 이중 산업연수생(18명)과 불법 체류자(15명)가 전체의 65% 가량을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의 경우 국내 체류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본국에서 발부발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돼있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보건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세공장 등에 취업하고 있어 에이즈 감염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聯合)